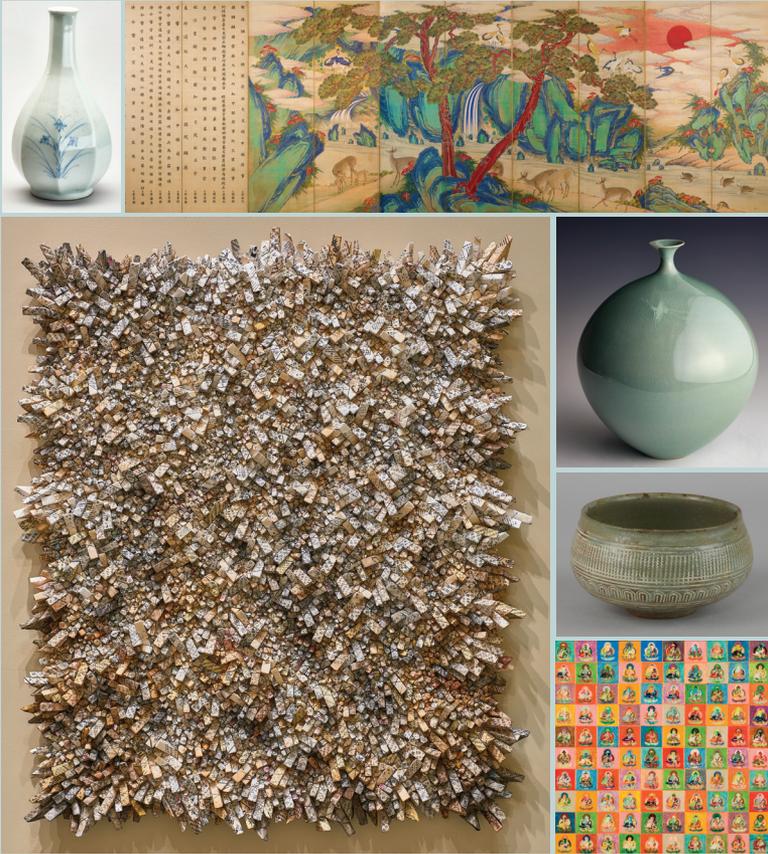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 유동하는 지속성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한국 미술

GALLERY GUIDE

# 유동하는 지속성

##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한국 미술

2025-2026 한국 미술 전시 <유동하는 지속성: 현대적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한국 미술>은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 미술의 서사를 한국 고유의 여섯 가지 미술 양식과 재료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재조명합니다. 이에는 조선시대 백자와 분청사기 그리고 고려청자로부터 기인한 도예 작품들과 한지와 비단, 그리고 목재를 사용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본 전시의 목적은 20세기 전후의 한국 미술사를 풍부한 문화유산과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현대적 해석들로 다양하게 이루어진 역사로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허완구·영자 전시관에서는 전통의 시기부터 현대 시점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한국 도예 작품들에 주목합니다. 한국의 도자기는 일상 기물로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고려청자의 은은한 비색부터 분청사기의 독특한 미감과 조선백자의 단아함까지 시대에 따라 다른 미감을 반영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재료를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다루지 않고,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탐구합니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의 재료로서 도자의 사용은 한국 미술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예술적 표현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진주갤러리에서는 한지와 목재, 그리고 비단으로 창작된 전시품들을 선보이며, 조선시대 병풍, 의복, 가구 등의 문화재들부터 현대의 회화, 서예, 그리고 혼합 매체 작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각 부문에서는 재료가 미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점에 주목하는데, 이에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재료의 생산, 유통, 공예미술 및 용도의 역사적 배경부터 현시대의 미적인 변형과 적용의 예시들까지 포함됩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시기가 한국에서 전통과 근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됨에 따라, 전근대 작품들은 역사·문화적 맥락의 엄격한 조사를 선보이는 한편, 현대 작품들은 한국과 근현대 문화에 모두 영향을 받은 각 작가의 개인적인 작업과 철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동하는 지속성> 전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미술을 재해석하는데, 이는 곧 ‘고유의 재료와 문화의 지속적인 계보’라는 주제 안에서 전근대와 현대 미술의 미적·관념적인 담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본 전시는 2023-2025 동아시아 미술 큐레이터 펠로우 정수진과 2024-2025 JSMA/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챌린저 박물관 인턴 황수현에 의해 공동 기획되었습니다.

# Fluid Continuity

Rethinking Korean Art in the Contemporary Age

**Fluid Continuity** highlights the narrative of pre-modern to present-day Korean art by interrelating six time-honored traditional art practices and mediums: celadon ceramics of the Goryeo dynasty (918-1392), *buncheong* ceramics and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nd works created using Korean paper, silk, and wood. The aim of this exhibition is to reenvision Korean art history since the turn of the 20<sup>th</sup> century (which is often addressed in a linear fashion with a series of divided timeframes) as a continuous multifaceted story comprised of rich cultural heritages and influences and their modern interpretations.

The Wan Koo and Young Ja Huh Wing Gallery presents an exploration of Korean ceramics created in various forms by traditional craftsmen and modern artists. Beginning as early, unglazed utilitarian objects, Korean ceramics evolved over time into the ethereal bluish-green celadon vessels of the Goryeo dynasty and later into rustic *buncheong* wares and refined white porcelains of the Joseon dynasty. Contemporary artists still engage with these hallowed ceramic traditions, reinterpreting them through a modern lens. The continuous use of clay in Korea reflects its versatility and endless possibilities for artistic expression.

The Jin Joo Gallery features a diverse constellation of objects made of Korean paper, wood, and silk, including Joseon-dynasty folding screens, costumes, and furniture, as well as contemporary paintings, calligraphy, and mixed media works. Each section presents the given material's artistic and cultural significance, ranging from its production, distribution, crafts, and uses during the late Joseon to its current aesthetic adaptation and transformation. As the late 19<sup>th</sup>-early 20<sup>th</sup> century marked a significant transi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zation in Korea, the earlier works offer a rigorous survey of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whereas the contemporary ones provide insight into each artist's individual practice and philosophy inspired by Korean and modern cultures.

**Fluid Continuity** reinterprets Korean art with fresh perspective, creating the aesthetic and conceptual dialogue between premodern and contemporary art within a continuous lineage. The exhibition was curated by Soojin Jeong, the JSMA's 2023-2025 Post-Graduate Curatorial Fellow in East Asian Art, as well as Suhyun Hwang, 2024-2025 JSMA/Korea Foundation Global Challengers Museum Intern.

# 청자 (靑磁)

청자는 주로 아시아에서 생산했던 자기로, 철분이 조금 섞인 점토 위에 장식질의 유약을 입혀 1250-1300°C 정도에서 환원염으로 구운 것을 일컫는다. 청자는 기원전 1천년 경 중국에서 우연히 자연유가 입혀진 조각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색의 범위와 예술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약을 조절하며 바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여 한국만의 청자를 발전시켰으며, 고려시대에 그 절정을 이루어 '비색(翡色)'으로 불리는 청자의 아름다운 푸른색을 구현해내었다.

한국의 청자는 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라도 강진과 부안에 위치한 가마에서 생산되었으며, 12-13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청자는 주로 고급 다기, 식기와 용기 뿐만 아니라 전(搏)으로도 만들어졌으며 음각이나 양각 등의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한국의 청자 장식 기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상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기법이다. 고려 청자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빛깔은 중국의 전문가들도 극찬할 정도로 뛰어났다.

20세기 초반에는 고려 청자의 유적이거나 가마터를 발굴하면서 다시 한번 청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한국 미술의 수집가들의 애호와 맞물리며 고려 청자의 인기가 다시 한 번 높아졌다. 이는 전통 고려 청자의 색채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특히나 '비색'을 재현하기 위해 철분의 함량을 조절하는 실험을 하거나 전통 가마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0-70년대에는 한국의 전통문화복원정책에 따라 청자의 제작이 활성화되었으며, 현대에는 청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청자를 예술 작품의 소재로서 발전시켰다. 이번 섹션에서는 고려시대의 **청자음각연화문발**, **청자상감국화문마상배**부터, 20세기의 **청자 완**, 그리고 현대 작품인 신상호 작가의 "**학무늬 세장병**"과 유혜자 작가의 "**Sitting by the Lakeside**"를 만나볼 수 있다.

# 청자 음각 연화문 발 (靑磁陰刻蓮花文鉢)



청자 음각 연화문 발(靑磁陰刻蓮花文鉢). 고려, 12세기. 회색토에 음각 후 청자유약.  
Dr. Don E. · Carol Steichen Dumond 기준, 1999:2.2

구연에 넓은 전이 달린 속이 깊은 발로, 내저면에는 넓은 원과 연화문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동체의 외면은 일정 간격을 두고 여섯 곳에 세로로 선이 새겨져 구획을 나누고 있다. 높은 굽은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져있으며 번조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 있다. 형태와 장식적인 특징에 따르면, 이 발은 뚜껑과 함께 제작되었던 세트였을 가능성이 높다.

# 청자 상감 국화문 마상배 (靑磁象嵌菊花文馬上盃)



청자 상감 국화문 마상배(靑磁象嵌菊花文馬上盃). 고려, 12세기.  
상감청자; 회색토에 흑백상감 후 청자유약. Sturdy 컬렉션으로부터 이전, 1993:4

독특한 유형의 고려시대 잔으로, 저부가 뾰족하여 바닥에 똑바로 내려놓을 수 없도록 제작되었다. 이는 연회나 전장에서 술을 다 마신 후 잔을 뒤집어 자신들이 술잔을 비운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이 잔은 세련된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구연부에 백토로 뇌문을 장식하였고, 외면의 동체면에는 국화문을, 저부에는 연판문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잔들은 주로 전라북도 부안의 유천리 가마에서 제작되었으며, 13세기에 많이 제작되다가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 청자 완 (靑磁碗)



청자 완(靑磁碗). 조선·일제강점기, 20세기 초반. 청자.  
Richard Paulin 유산 기증, 2020:34.14-15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완으로, 외면 동체부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음각한 짧은 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인 고고학자와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한국 유물의 발굴과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일본인 미술품 수집가들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 청자의 애호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하기 위해 철분의 함량을 조정하는 등의 기술적인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20세기 후반 한국 도자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학무늬 세장병(細長瓶)



신상호(b. 1947). 학무늬 세장병(細長瓶), 1973년 경. 상감청자; 회색토에 백토 상감 후 청자유약.  
신치식·조해순을 기리며 John Gregor·조경숙(Mrs. Kyungsook Cho Gregor) 기증, 2021:6.1

볼륨감 있는 동체와 좁은 구연부를 가진 이 청자 병은 신상호의 초기 작품이다. 신상호는 한국 현대 도예가이자,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학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상감기법을 사용하여 학 모티프를 그려넣고 유약을 바른 이 작품은 작가의 예술적인 접근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신상호는 현대적인 미감을 통해 전통 한국 도자기의 기법을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한 번 만든 작품은 다시 만들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에 따라,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예술적 실험을 추구한다. 그의 작품은 전통 한국 도자 기술과 현대의 공예적 감각을 융합하여 현대의 시선으로 과거를 보여준다. 이 청자 병은 13세기 상감 청자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회화로부터 받은 영향도 포함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청자들이 국화나 학 등의 문양과 함께 유려한 곡선이 강조된 형태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비색의 표면이 창공을 나타내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학이 표현되었다.

## Sitting by the Lakeside



유혜자(b. 1945). *Sitting by the Lakeside*, 2000. 회색토에 음각 후 청자유약.  
작가 기증(국제예술가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E. 로즈 & 리오나 B. 카펜터 재단의 지원), 2010:1.1

유혜자의 작품은 자연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 제작되었다. 그녀의 작품에는 자연의 모티프와 패턴이 포함되어 있다. 유혜자의 작품은 연꽃, 연잎, 물고기 등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특한 회화적 표현을 보여주어, 전통적인 한국 도예의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다. "**Sitting by the Lakeside**"에는 청자로 제작한 기물에 양각과 음각으로 물가의 모습을 다양한 모티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전통적으로 한국 도자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연꽃의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녀는 도예 작품에 회화적인 요소를 접목시켜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작품은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를 지니면서도, 회화적인 표현으로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며 예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을 제공한다.

# 분청사기

## (粉靑沙器)

분청사기는 15세기 조선시대 무렵에 발전한 한국 고유의 도자기이다. 회색의 태토 위에 정선된 백토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표면을 분장한 뒤에 유약을 씌워 환원염에서 구운 도자기이다. 분청사기의 태토는 청자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

‘분청사기’ 용어는 1930년대 한국의 미술사학자 고유섭이 고안한 단어로,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이다. 이는 “분(粉)으로 장식한 회청 사기”라는 뜻이다. 분청사기의 특징은 백토의 분장(粉粧)기법에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분장기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화기법으로, 도장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문양을 찍어낸 뒤, 백토로 그 부분을 메우는 것이다. 이외에도 음각기법이나 박지기법(백토를 바른 그릇의 표면에 무늬 이외의 배경을 긁어내는 기법), 철화(鐵畵)기법, 귀얄기법, 덩벙기법 등이 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청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전하여, 15-16세기 동안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생산되는 가마터의 지역과 사용처 및 수요처가 특정되었던 청자와는 달리, 분청사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모든 사회 계층에 의해 소비되었으며, 왕실 의례용 기물부터 일상의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분청사기의 기형은 주로 풍만하고, 안정감 있는 실용적인 기형들이 많다. 비록 16세기 임진왜란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지만, 분청사기는 이후 일본의 도자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에는 분청사기만의 대담하면서도 투박한 미감을 이어받아, 현대 도예가들도 분청사기를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분청사기의 전통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더해 현대적인 분청사기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당초문 병**과 **분청사기 인화문 발**, 그리고 전통 분청사기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미감을 더한 유병호의 **"꽃무늬가 장식된 원형 대접"**과 최성재의 **"새벽"**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 분청사기 당초문 병 (粉靑沙器唐草文瓶)



분청사기 당초문 병(粉靑沙器唐草文瓶). 조선, 15-16세기. 분청사기; 회색토에 철화 및 백토 분장 후 청자유약.  
John Gregor·조경숙(Mrs. Kyungsook Cho Gregor) 기증, 2017:49.15

구연부가 외반하였고, 좁은 경부에서 동체부까지 하부로 점점 넓어져 굽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병이다. 경부부터 동체부까지 넓은 붓을 이용하여 백토를 빠르게 붓칠하여 표면을 장식하는 기법인 귀얄 백토 분장을 하였다. 이때 붓의 결이 그대로 남아 백토가 불규칙하게 발리면서 거친 질감이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백토 분장 위에는 철 안료로 가로선을 두르고 당초무늬를 그려넣었다. 이 병은 분청사기의 조형적, 장식적인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기물이다.

# 분청사기 인화문 발 (粉靑沙器印花文鉢)



분청사기인화문발(粉靑沙器印花文鉢). 조선, 15세기 전반 경.  
분청사기; 회색토에 백토로 인화 상감 장식 후 청자유약. Farwest Steel 한국미술 기금 구입, 2015:32.1

이 분청사기 인화문 발은 동체부에서 구연부에 이르는 곡선이 완만하게 안쪽을 향하고 있다. 회색의 기면 위에 인화기법으로 백토를 감입하여 장식하였고, 그 위에 녹색의 유약을 두껍게 시유하였다. 동체부의 외면은 반복적인 문양을 도장으로 표면에 찍어내는 인화기법으로 장식하였으며, 외면의 저부는 연판문(연꽃잎무늬)과 띠문양을 돌려 장식하였다. 인화기법으로 장식된 부분은 유약을 시유하기 전에 백토를 감입하여 기면의 어두운 색과 대비를 이루었다. 이 장식기법은 고려시대 청자의 상감기법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분청사기만의 투박하고 소박한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인화문발은 분청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며, 세심한 표면 장식을 통해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박함을 포용하는 한국의 미감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 꽃무늬가 장식된 원형 대접



청림 유병호(b. 1947). 꽃무늬가 장식된 원형 대접, 20-21세기 경.  
인화분청사기; 회색토에 인화 상감 장식 후 청자유약. 조정현 기증(유병호 헌정), 2017:15.2

유병호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다. 그는 순수한 전통 기법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들어내며,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 유병호는 주로 빗살무늬, 인화문, 철화문, 귀얄문 등 한국의 전통적인 도자 장식 기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미감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도자 예술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의 표면 장식 문양은 특히나 정교하고 복잡하여 섬세한 장인정신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유병호는 내면과 외면에 분청사기의 인화기법을 섬세하게 사용하여 정교한 장식 효과를 더하였다. 그는 자연의 질감과 색감을 최대한 지키고자하여, 자연의 색감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자신만의 접근 방식을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하여, 유병호는 한국 도예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나가고 있다.

# 새벽



최성재는 도예가이자 교수로, 기물과 도화(陶畵)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는 분청사기에 백토를 분장한 후 손가락이나 나뭇가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백토 분장을 긁어내어 회화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유약을 바르기 전 태토의 회색과 백토의 흰색간의 대비를 활용한다. 그의 회화적인 이미지는 주로 단순하지만, 그들의 구성은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 최성재의 표현성은 분청사기의 투박한 미감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성재(b. 1962). 새벽, 2001. 분청사기; 회색토에 백토로 귀얄 장식 후 청자유약.  
작가 기증(국제예술가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 E. 로즈 & 리오나 B. 카펜터 재단의 지원), 2010:1.3

# 백자 (白磁)

백자는 고령토와 장석이 일부 포함된 백토로 모양을 만든 뒤에 무색 투명의 유약을 시유하여 1300-1350°C에서 환원염으로 구워낸 자기로, 기원후 1세기경 무렵부터 중국에서 유래하였다. 한국에서 백자는 주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백자는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식기류와 문방구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백자는 기형의 아름다움과 단정함, 그리고 최소한으로 사용한 색채에 그 특징이 있다.

조선 초기에 왕실은 백자를 선호하며 이를 왕실 및 관청의 공식 도자기로 지정하였다. 특히 수도 서울과 근접한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분원(分院)에서 고급 백자가 생산되어 왕실과 양반층의 의례용 기물, 공예품, 제기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화되며 조선의 도자기 산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8세기부터 백자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왕실이나 관청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제기로 백자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적과 필통 등 각종 문방구류를 백자로 제작하여 널리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화백자와 철화백자와 같이 문양이 가미된 형태도 유행하며 백자의 예술적인 표현이 더욱 다양해졌다.

현대에 들어서며, 백자는 전통 공예를 넘어 현대 도예와 미술의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한국의 도예가들은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예술 작품으로서 백자를 제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한국 백자의 미학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조선시대부터 21세기까지 백자의 활용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백자 호**, **백자 청화 병**, **백자 연적**부터 백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인 이영호 작가의 "**능선무늬 병**", "**점선무늬 반구형 원형 연적**", "**오악 형태의 소형 필가**"와, 홍순정 작가의 《**1977 Happy Birthday**》를 감상할 수 있다.

## 백자 호 (白磁壺)



백자 호(白磁壺). 조선 중기-후기, 17-18세기 경. 백자에 투명유약.  
Robert & Sandra Mattielli 소장품 대여, L2025:26.1

문양이 없는 무문의 백자호로, 곧게 뻗은 구연부를 가지고 있다. 둥글게 부풀어 있는 어깨에서부터 동체 하부로 갈 수록 점차 좁아지는 형태이다. 조선후기로 갈 수록 호는 구연부가 직립해있으며, 어깨가 부풀어올랐다가 굽으로 내려가면서 폭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호는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또한 상부와 하부가 결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부는 굽 가까이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이며, 굽은 호의 바닥을 파내어서 만들었다. 또한 굽바닥에는 가마에서 소성할 때 사용했던 모래받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울(栗)’이라는 글자가 청화안료로 새겨져 있어 이 호와 관련되어 있는 관청이나 소비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이 호는 17세기 또는 18세기에 경기도 광주 신대리의 관요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후기 무문백자의 뛰어난 예시로 볼 수 있다.

## 백자 청화 병 (白磁靑畵瓶)



백자 청화 병(白磁靑畵瓶). 조선·일제강점기,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경. 백자에 청화.  
John Gregor·조경숙(Mrs. Kyungsook Cho Gregor) 기증, 2017:49.16

몸통에 각이져있는 청화백자병으로, 넓은 동체 하부에서 길고 가느다란 경부까지 부드럽게 이어져있다. 바닥에는 한자로 ‘안(安)’ 자가 새겨져 있으며, 동체 외면에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청화안료로 난초가 그려져있다. 고려시대의 청자나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와 비교하면, 조선시대의 백자는 장식의 재료와 기법에 있어서 비교적 단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파내거나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순백자 위에 푸른 색으로 장식하기 위해 회청(回靑)이라고 불리는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는 청화 기법은 중국에서 유래된 중요한 장식 기법이었다. 백자에는 주로 사군자나 포도 등 사대부층에서 선호되던 모티프가 장식되었다. 이 병은 조선백자만의 청화백자의 미적 감각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백자 청채 물고기모양 연적 (白磁靑彩魚形硯滴)  
 백자 청화 산수문 연적 (白磁靑畫山水文硯滴)  
 백자 청화 칠보문 연적 (白磁靑畫七寶文硯滴)



백자 청채 물고기모양 연적(白磁靑彩魚形硯滴)  
 백자 청화 산수문 연적(白磁靑畫山水文硯滴)  
 백자 청화 칠보문 연적(白磁靑畫七寶文硯滴)

조선 후기, 19세기. 청화백자; 백자에 청화. Robert & Sandra Mattielli 소장품 대여, L2025:26.2-4

연적은 버루에 먹을 갈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물이다. 연적은 특히나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중요한 문방구였다. 서예를 할 때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먹의 농담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표현 효과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글을 숭상하게 됨으로서, 연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맞춰 생산량과 형태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현전하는 백자 연적은 원형, 4각, 6각, 8각 등 다각형 연적과, 복숭아, 감, 동식물, 집, 산 등을 본뜬 상형 연적 등이 있다. 또한 백자에 청화로 사군자나 칠보문, 산수문을 그려넣은 것도 있다.

## 능선무늬 병



이영호 (b. 1958). 능선무늬 병, 2017. 백자에 투명유약. 이영호 기증, 2017:26.1

도예가 이영호의 작품들은 실용성과 예술성을 조화하여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국 백자의 미를 재해석한다. 그의 작품들은 과장되거나 지나친 것을 배제하고, 조선시대의 겸손한 미감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성과 간결성이 자연과 인간 본성의 고유한 것이라고 믿으며, 그는 최소한의 장식성으로 자신의 작품에 내재된 아름다움이 빛나도록 한다.

그의 작품 **“능선무늬 병”**에는 복잡함을 덜어내고 조선 백자의 간결성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작품의 규모나 기술적인 역량을 과시하기 보다는, ‘한국의 백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미감인 단순성과 간결성을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 점선무늬 반구형 원형 연적 오악 형태의 소형 필가



이영호(b. 1958).

점선무늬 반구형 원형 연적, 2012.

오악 형태의 소형 필가, 2012.

청화백자; 백자에 청화 안료로 장식. Farwest Steel 한국미술 기금 구입, 2013:1.1-2

“점선무늬 반구형 원형 연적”과 “오악 형태의 소형 필가”를 통해서는 일상 기물로써 조선시대 선비의 예술의식을 미적으로 되살렸다. 조선 백자의 조형의식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정서인 단순성과 순박함을 이끌어 내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부활시키 고자 하였다.

1977 Happy Birthday



홍순정은 한국 전통의 도예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인 조형미를 접목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그녀는 한국의 도자기를 공예 조형물의 소재로 차용하여, 자신의 추억을 도자를 소재로 하여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그녀의 기억 속의 사물들은 사라졌지만, 사물에 대한 기억을 도자라는 형태를 통해 남긴 것이다. 《1977 Happy Birthday》는 그녀의 생일날 잔치상에 놓여 있던 밤과자를 형상화한 것이다. 그녀는 밤과자로 석고틀을 만든 후 백색의 흙으로 석고틀에 성형하여 초벌하였고, 유약을 시유한 후 재벌한 것을 반짝이 물감으로 장식하였다. 그때의 밤과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스테인리스 접시 위에 도자기로 재탄생한 밤과자는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홍순정(b. 1968). 1977 Happy Birthday, 2012. 백자 및 스테인리스 접시.  
홍순정 기증, 2017:14.1

# 비단 (緋緞)

비단은 천연 단백질 섬유로, 고급 원단의 주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시장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며, 전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생산되고 사용되어 왔다.

비단의 원료인 견사는 기원전 4세기경 중국에서 양잠(養蠶) 기술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1세기까지 국가 기밀로 유지되었다가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전파되었고, 실크 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산되었다. 조선시대 중앙 정부는 국가 재정과 백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양잠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전국 곳곳에 뽕나무 밭이 조성되었다. 길쌈은 특히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의 일환으로 권장되었고, 왕실 전용 최고급 비단은 국가 직영의 직조 시설에서 생산되었다. 동시에, 양반층의 높은 수요에 따라 민간 수공업도 크게 발달하였다.

가내 수공업에서는 사대부가 여성들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고 베틀로 직조하여 비단을 제작하였다. 이처럼 만들어진 비단은 주로 양반층의 의복 제작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시장을 통해 판매되어 가계의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서민들이 입었던 면직물이나 삼베 옷과 달리, 비단은 품질과 가격이 월등히 높아 상류층의 주요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는 중국과 서구로부터의 비단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고급 비단 생산은 다소 위축되었지만, 비단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다. 의복뿐 아니라 서화의 바탕, 병풍과 족자의 장황(裝潢) 등 예술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해 비단은 공장 생산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후에는 패션 산업뿐 아니라 시각 예술에서도 그 미적 가능성을 넓혀 나갔다.

이번 섹션에서는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국과 그 너머에서 사용된 비단의 다채로운 양상을 조명한다. 소개되는 작품에는 「십장생도」 병풍, 「무관초상」 족자의 비단 바탕, 여성 전통 **한복**,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작가의 현대 설치작품 《보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비단이라는 소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해석되고 계승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 십장생도 (十長生圖)



십장생도(十長生圖), 조선, 1879-1880년.  
10폭 병풍; 비단에 먹, 채색 및 금박. Murray Warner 동양미술 컬렉션, MWK68:3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 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십장생도로, 자연과 동물, 식물에 담긴 길상적 의미를 통해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회화 형식이다. 본래 왕실 의례와 기념행사에서 왕비의 어좌 뒤에 놓이는 병풍으로 사용되었으며, 왕과 공신들 사이에 교환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념비적 병풍은 태양, 산, 물, 구름, 바위, 소나무, 불로초, 학, 사슴, 거북 등 십장생을 구성하는 자연 요소를 묘사하며, 이를 통해 군주의 장수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본 작품의 웅장한 크기, 섬세한 필선, 두껍고 풍부한 안료의 사용은 이 병풍이 궁중 회화로 제작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 두 폭에는 1879년 이후 천연두에서 회복한 왕세자 이척(훗날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재위 1907-1910)의 치료를 담당했던 내의원 관련 관료 14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이 병풍이 당시 국왕 고종 또는 관련 관료들에 의해 의뢰되었으며, 고종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세자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여러 조형적 특징들이 눈에 띈다. 기념비적인 규모, 평평하고 정적인 구도, 다양한 시점의 혼용, 풍부하고 짙은 색조, 그리고 비대칭적이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구성은 이 병풍이 현실을 초월한 조화로운 이상 세계, 즉 초자연적 풍경을 구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 무관초상 (武官肖像)



무관초상(武官肖像). 조선, 18-19세기.

족자; 비단에 먹과 채색. Murray Warner 동양미술 컬렉션; MWK32:1

조선시대 국가 이념이었던 유교 사상은 조상과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세밀한 초상화 제작의 전통을 낳았다. 18세기 이후 조선은 중국을 매개로 근대 문명과 서구의 회화 기법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학 사상이 발달하면서 시각 예술을 포함한 과학·문화 전반에 사실주의적 표현이 확산되었다. 당시의 인물화들을 살펴보면, 서양의 사실 묘사 기법이 수용되어 음영법(색채 안료를 물방울 위에 떨어뜨려 은은한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얼굴은 더욱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며, 회화 기법 역시 한층 정교해졌다. 본 초상화에서도 인물의 얼굴에 나타나는 생리학적 특징들이 음영법에 의해 섬세하게 강조되어 있으며, 반면 의복은 보다 대담하고 평면적으로 표현되어 얼굴과의 대비가 더욱 뚜렷하다. 또한 인물 주변에 그려진 의자와 발받침대는 원근법을 적용해 배치되었으며, 그 소실점은 화면 후면의 배경을 향하고 있어 서구 회화의 공간 인식을 반영한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배채법을 사용하여 완성되었다. 배채법은 견직물의 뒷면에 윤곽선을 그리고, 앞면에서 색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안료를 견직물에 고착시키면서도 은은한 색채 효과를 연출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기법이 가능했던 것은 비단이 지닌 투명하면서도 견고한 물성 덕분으로, 조선의 초상화가 서구 기법을 수용하면서도 고유의 전통과 재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 저고리와 치마 (襦裳)



저고리와 치마(襦裳). 20세기. 청·백색의 테트론 폴리에스터.  
김행자 기증, 서울, 대한민국; 1972:38.5a-e.

이 전시품은 조선 후기에 유래한 한복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여준다.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로 구성된 이 한복은 전통적인 실루엣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1953년 이후 발전된 단순화된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저고리는 카프탄(caftan)\* 형식의 구조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우아한 곡선을 지니며, 전체적으로 절제되고 품위 있는 인상을 준다. 청색과 백색의 조화는 담백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동양의 음양 사상을 기반으로 한 오방색체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색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검소한 곡선미는 자연에 대한 조선인의 정서적 동경을 반영하며, 전통 복식의 미학을 잘 보여준다. 한복은 본래 비단, 면, 리넨 등의 천연 섬유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소재는 자연의 질감과 미감을 그대로 담아냈다. 본 전시품에서는 비단의 투명성과 은은한 색광을 모사한 고급 폴리에스터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현대 섬유기술을 통해 전통의 미감을 재해석한 예라 할 수 있다.

\* 카프탄(Caftan): 아시아의 고대 유목민들이 착용했던 긴 소매의 길고 헐렁한 겹옷.

## 모시저고리와 치마 (薄絹襦裳)



모시저고리와 치마(薄絹襦裳). 1930년경. 비단과 모시(리넨).  
조경숙(Mrs. Kyungsook Cho Gregor) 기증, 1984:6.5a-b

이 전시품은 한복이 근대화되기 시작한 시기, 즉 일제강점기의 변화상을 잘 보여준다. 당시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국가의 자주권 회복과 신교육을 목표로 다수의 학교와 단체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실용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한복을 입기 시작했고, 치마는 짧아지고 저고리는 길어지는 등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오른쪽에 함께 전시된 또 다른 전통 한복과 비교해보면, 이 의복은 단지 길이의 변화뿐 아니라 현대적인 디자인과 색감, 그리고 리넨 소재의 사용을 통해 한복의 근대적 전환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특히 치마 위에 펼쳐진 이국적인 원형 문양은 당시 일본의 영향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저고리 가장자리에는 한자 “福(복)”자가 섬세하게 일곱 번 자수로 수놓아져 길상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전통 한복의 특징이었던 유려한 곡선 실루엣은 이 의복에서는 일자형 실루엣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이는 당시 한복이 점차 현대의 일상복과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Circuits (보자기)



이지선(b. 1974). *Circuits(보자기)*, 2007. 명주, 무명실;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Farwest Steel 한국미술 기금 구입, 2008:7.1

이지선은 느리고 명상적인 섬유 작업을 통해 자신의 기억, 감정, 노동, 시간을 한 땀 한 땀 엮어 내며, 미국에서 여성 이민자 작가로서 살아가는 정체성과 경험을 탐구한다. 그녀에게 있어 섬유라는 재료는 유년 시절 한국에서 매일 자수를 놓으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가족과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적인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지선의 반복적인 작업 과정은 그녀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적·사회적 경계들 사이의 긴장감과 도전은 유적으로 구현한다. 마치 천을 짜는 일이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 수많은 제약과 섬세함을 요구하듯, 그녀는 한국, 미국, 터키라는 세 문화권 속에서 작가, 교수, 엄마로서 부여받는 다양한 기대와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이어간다. 작가에게 섬유 작업은 내면을 정리하고 감각을 확장시키는 명상적 실천이다. 그녀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층위를 묶고, 수놓고, 엮고, 퍼뜨리며,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한 개인이 다문화적 삶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해 나가는 서정적이면서도 치열한 흔적으로 읽힌다.

# 목재 (木材)

목재는 한국의 전근대 문화에서 가장 친숙하고 널리 사용된 재료 중 하나로, 주택, 궁궐, 사찰 등 다양한 건축물에 귀하게 쓰였다.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목재를 활용한 우아한 가구들이 상류층은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도 널리 환영받았다.

14세기 후반부터 조선 정부는 수도 주변의 울창한 녹지를 보호하고 국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산림과 산지를 국유지로 지정하고 벌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목재 수급은 국가의 관리하에 이루어졌으며, 중앙 관청 소속의 목공 전문 공장청에서는 왕실과 귀족층의 수요에 맞춘 고급 가구를 제작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귀족층은 왕실의 취향을 반영한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목가구의 주요 수요층이었다. 이러한 관장 수공업은 국가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한 임진왜란(1592-1598) 이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다.

이후 신분제 개혁과 시장 경제의 확산은 목공 산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새로운 상류 장인 계층과 소비자층이 등장하면서 민간 작업장이 생겨났고, 농기구나 생활용품뿐 아니라 양반 가정용 고급 목가구도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초까지 이어졌으며, 점차 관영 수공업의 기술과 자원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변화에는 복식 규제의 완화로 인해 함과 장롱 같은 가정용 수납 가구의 수요가 증가한, 이른바 ‘의복 혁명’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목가구 산업은 19세기 말까지 더욱 확장되었고, 신흥 상류층 소비자의 증가에 따라 고급 가구는 점차 신분에 관계없이 대중을 위해 생산되고 보급되었다.

오늘날 목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미술 및 디자인 재료로서, 주재료 또는 보조재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섹션은 조선 후기 목가구의 대표적 예들과 함께, 목판이라는 재료를 활용하여 한국적 정체성을 탐구한 현대 회화 및 서예 작품들을 소개한다. 고급스러운 나전칠기 가구인 **받침장**과 **경상**,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소반** 두 점, **이충농**, 「**목조좌불상**」 외에도, 강익중의 회화 작품 《**행복한 부처**》와 정도준의 현대 서예 작품인 《**노자 『도덕경』 제51장**》이 전시된다.

# 나비 모양 자물쇠 장식이 있는 이층농 (二層籠)



나비 모양 자물쇠 장식이 있는 이층농(二層籠). 20세기.  
느티나무, 백동 장식. 조경숙(Mrs. Kyungsook Cho Gregor) 기증, 1987:195

이 우아한 **이층농**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옷, 이불, 직물 등을 보관하기 위해 안방에 두고 사용하던 수납용 가구의 예이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복식 규제가 완화되고, 이른바 ‘의복 혁명’이라 불리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직물의 생산과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이러한 수납용 가구의 제작도 활발해졌다. 이층농은 본래 이동이 용이한 고리농(쇠고리가 달려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형태)에서 발전한 유형으로, 사용의 편의를 위해 중간에 여닫이문을 달아 두 단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다. 외형 곳곳에는 백동으로 제작된 정교한 장식들이 장식되어 있으며, 나비 모양의 자물쇠와 경첩, 그리고 번영과 장수를 상징하는 길상 문양의 수구와 모서리 장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느티나무 목재, 백동 장식, 평평한 목판 형태를 통해 이 농이 경상남도 통영 지역에서 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목조좌불상 (木造坐佛像)



목조좌불상(木造坐佛像). 조선·일제강점기, 19세기 후반-20세기 초  
Robert & Sandra Mattielli 소장품 대여, L2025:26.6

이 불상은 하나의 통나무를 이용해 조각하는 일목조(one-block carving)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목재의 자연스러운 결과 나이트가 작품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재료로 사용된 소나무는 조각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높아 불교 조각에 널리 쓰이는 목재 중 하나이다. 불상은 반쯤 감은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은 얼굴로 좌선하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작은 소라 모양의 나발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으며, 머리는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묘사되었다. 한국의 많은 불상들이 금박으로 장식되었던 것과 달리, 이 작품은 금박이 입혀지지 않아 목재 고유의 질감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금박이 없는 점은 예술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이 불상이 사찰이 아닌 개인적인 신앙용(사불용)으로 제작되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 행복한 부처 (Happy Buddha)



강익중(b. 1960). 행복한 부처, 2007. 소나무판 위에 크레용, 템페라, 엔바이로텍스 라이트 폴리머 코팅.  
James and Haya Wallace 인수기금 구입, 2008:13.1

세계적인 작가 강익중은 3인치 크기의 작은 캔버스나 목판을 수백 개 이어 붙여 만든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업은 거대한 벽면을 채우는 기념비적 규모로 제작되며,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세계관을 담아낸다. 1984년부터 뉴욕에 거주하며 이민 작가로 활동해 온 그는, 초기에 도시의 빠른 일상 속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손바닥 만한 캔버스에 도시의 풍경을 매일 그렸다. 초기의 도시 전경은 시간이 지나며 부처상, 한국 도자기, 한글, 어린이의 그림과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전 세계 관객들과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해왔다. 《행복한 부처》는 작가 자신을 투영한 ‘부처’의 이미지를 100개의 작은 목판 위에 그려낸 작품이다. 미국이라는 국제적 문화권에서 다양한 영감을 수용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다. 부처의 형상은 동양의 오방색을 포함한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다문화 사회 속에서 활발히 교류해 온 그의 한국적 정체성과 문화적 혼종성을 상징한다. 특히 목재라는 재료를 선택한 이유는,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가 손의 감각을 통해 작품을 느끼길 바랐던 작가의 깊은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강익중의 작품은 개인적인 기억과 감성, 정체성과 세계성의 교차점 위에서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형성한다.

#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51장



소현 정도준(b. 1948).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 제51장, 2006.  
 끈으로 엮은 나무판 위에 먹으로 쓴 한자 서예. Murray Warner 인수기금 구입, 2007:2.3

현대 서예가 정도준은 동양의 서예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적 언어로 자신만의 표현 세계를 구축해 온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주로 한글과 한자의 전서체(篆書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절제된 형식 안에서 조형성과 감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 작품은 중국 도교의 핵심 경전인 『도덕경』 제51장을 작가 특유의 정교한 전서체로 옮겨 적은 것으로, 섬세하고 조형적인 문자들이 목판 위에 세로로 엄격하게 정렬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과 통제된 질서 사이의 긴장과 조화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배경으로 사용된 끈으로 엮은 나무판은 종이 생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삼국시대에 필사나 서예의 매체로 쓰이던 전통을 떠올리게 하며, 고대 서예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보여준다.

## 소반 (小盤)



소반(小盤). 20세기. 소나무.  
Robert & Sandra Mattielli 소장품 대여; L2025:26.5a, L2025:26.5b

이 두 개의 소반은 조선시대 유교적 신분제와 온돌 구조에 기반한 좌식 생활문화 속에서 보편화된 한국식 식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유교 이념은 더욱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엄격한 신분제와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의 가치관이 자리 잡으면서, 양반 가정에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예컨대, 부엌은 여성만 사용하는 공간이었으며, 남성은 독립된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작고 가벼운 소반의 형태에 반영되어, 여성들이 부엌에서 여러 방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데 용이하게 제작되었다. 이 탁자들은 호랑이의 유려한 다리 형태를 닮은 다리들을 갖추고 있어 ‘호족반(虎足盤)’이라 불리며, 상판은 12각형으로, 전라남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히 제작된 전형적인 양식이다.

## 장수와 길상 상징 문양이 새겨진 받침장



장수와 길상 상징 문양이 새겨진 받침장. 조선, 19세기 후반.  
나전칠기, 장식. Laura Miller 기증, 1969:10.16a-c

이 **받침장**은 조선 후기 널리 제작·보급된 나전칠기 양식의 대표적인 예로, 그 장식성과 기법에서 뛰어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국의 나전칠기는 고려시대 불교의 화려한 문양에서 유래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더욱 실용적이고 단순한 장식 형태로 발전하였다. 조선 초기 ‘함(函)’이라 불린 수납용 가구는 왕실 전용으로 제작되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민간 공방에서 신혼 상류층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가 제작되었다. 이 받침장은 당대 민화적 요소들이 장식 문양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서민층에까지 퍼졌던 기복 문화의 전통을 반영한다. 전면의 여담이문에는 구름, 해와 달, 느티나무, 사슴, 학, 대나무 등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장수를 상징한다. 하단에는 복숭아, 국화, 모란 문양이 장식되어 번영과 풍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나전칠기에 사용된 주요 재료는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일대 해안에서 채취한 전복 껍데기로, 장인들은 이를 얇게 깎거나 미세하게 분쇄하여 목재 표면에 판 홈에 정교하게 박아 넣었다. 이러한 세밀한 장식 기법은 당시 공예의 높은 수준과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 경상 (經床)



경상(經床). 중국, 연대 미상. 나전칠기.  
Murray Warner 동양미술 컬렉션, MWK13:6

# 한지 (韓紙)

한지는 기원전 2세기 중국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제작된다. 닥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질긴 섬유를 물에 풀어 대나무 틀로 뜬 뒤, 오랜 시간에 걸쳐 말리며 종이를 형성한다. 껍질을 자르고, 찌고, 삶고, 벗기고, 두드리고, 뜨고, 말리는 이 섬세하고도 복합적인 제작 과정은 고도의 장인 기술뿐 아니라, 막대한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한지의 문화적 가치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1건 중 8건이 한지로 제작되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물은 8세기 제작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한국에서 종이 제작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종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점은 조선 초기에 국영 기관 ‘조지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조지소는 닥종이 화폐의 생산과 함께 왕실 및 관청, 외교 목적의 문서나 서적 제작을 위한 고급 한지를 생산하였으며,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이를 전파하기 위한 유교 서적의 인쇄가 주요 제작 목적이 되었다. 그 결과, 조선 중기까지 한지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고품질 종이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조공의 증가와 같은 외교적 요인으로 한지의 품질과 생산력은 점차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어진 임진왜란(1592-1598)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조지소에 필요한 원료와 인력 공급의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영 제지 산업은 쇠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민간 제지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8세기 후반 조선의 문예 부흥기와 함께 활발한 학문 활동과 자유로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한지의 민간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다.

오늘날 한지는 높은 셀룰로스 함량에서 비롯된 보존성, 빛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친환경적인 재질로 주목받으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는 국가 및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들에 의해 다양한 전통 공방에서 제작되고 있으며, 한국의 시각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인 재료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전시 섹션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지로 제작된 작품들을 조명한다. 이에 한글로 번역된 유교 서적 『중용언해』, 지식과 예술을 상징하는 「책거리도」 병풍, 그리고 한지의 조형적 잠재력을 확장한 현대 작품인 《집합 17 - DE098》과 《Forever Couplehood II》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작품은 한지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시대와 문화의 감성을 담은 예술적 재료로 지속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용언해 (中庸諺解)



중용언해(中庸諺解; 한글 번역본). 조선, 1810년(1590년 원본 편찬).  
목판화 서적; 종이에 먹. 박물관 컬렉션, XDX3

『중용언해』는 기원전 1세기경 중국에서 유래한 유교 경전 『중용』을 조선에서 한글로 번역하고 해석한 판본으로, 1584년 조선 선조의 명에 따라 필사 및 번역되었다. 이 책은 유교 사상의 핵심 교재인 사서오경 중 하나로, 예의범절과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절제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중용(中庸)’은 유교에서 모든 말과 행동, 감정의 표현에 있어 적절함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뜻하며,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처신을 돌아보는 근본적인 윤리적 지침으로 여겨져 왔다. 『중용언해』는 1590년 조선에서 최초의 한글판으로 간행된 이후, 중앙의 주자소와 지방의 다양한 활자소에서 편집과 구성이 조금씩 다른 여러 개정판으로 인쇄되었다. 본 전시의 판본은 한자로 된 각 구절을 한글 번역문을 덧붙여 필사한 형태로, 유교 경전의 내용을 더 넓은 독자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책은 고도의 목판 인쇄 기술을 통해 대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조선 시대 유교 경전의 전국적 보급과 함께, 유교 경서의 의미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학문인 경학(經學)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중용언해』는 단순한 교육용 텍스트를 넘어, 조선 후기 지식의 보급과 문자 생활의 확산을 상징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책거리도 (冊巨里圖)



책거리도(冊巨里圖). 조선, 19-20세기.  
8폭 병풍; 종이에 채색. 허완구·김영자 기증, 2004:9.1

이 작품은 궁중 회화의 전통이 중인과 서민층으로 확산되며 독자적으로 발전한 책거리도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왕실에서 제작된 책거리도는 대개 화폭 전체를 책장으로 가득 채우고, 화려한 서적과 고급 기물들을 빼곡히 배치하는 정연한 궁중 양식을 따랐다. 그러나 이 병풍은 책과 장식 기물들을 쌓아 올린 8개의 더미(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상적 사물과 독특한 회화 기법이 강조되어 중인 계층의 미적 취향과 회화적 양식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책거리도는 전통적으로 중국 고서와 도자기, 문방구 등을 화려하고 정교하게 묘사해왔으며, 이는 유교 학문과 중국 골동 문화를 동경하던 양반·지식인 계층의 애호 문화를 반영한다. 반면, 복을 기원하는 과일이나 동물 형상의 도자기, 조각품 등이 등장하는 작품들은 서민층의 기복 신앙을 반영하는데, 이는 조선 말기 신분 제도의 완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시각 문화의 흐름 중 하나다. 이 병풍은 질고 세밀한 안료 표현이 특징인데, 이는 흡수력이 뛰어나고 번짐이 적은 한지의 재질적 특성 덕분에 가능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은 당시 회화 제작에서 한지가 중요한 재료로 쓰이게 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작품은 여러 겹의 한지를 목판에 정교하게 겹쳐 붙인 후, 각 폭을 두터운 한지 경첩으로 연결해 하나의 병풍으로 완성되었다. 이처럼 책거리도는 단순한 장식화가 아니라, 계층별 취향과 시대적 변화, 재료의 특성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화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집합 17 - DE098



전광영(b. 1944). 집합 17 - DE098, 2017  
한지·혼합 매체. Mark Spokenburgh 기금 구입, 2018:19.1

전광영은 1995년부터 인류 역사 속 이념과 사회적 연합, 그리고 대립의 구조를 형상화한 ‘집합’ 시리즈를 제작해왔다. 그는 유년 시절 전통 한지로 포장된 한약재에서 영감을 받아, 수천 개의 스티로폼 조각을 고서, 족보, 신문 등에서 직접 뜯어낸 한지 조각들로 감싸는 독창적인 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번 전시작인 《집합 17 - DE098》은 마치 역사적 기록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회오리처럼 보이며, 이는 수만 년 전 대륙 간의 물리적 충돌과 전쟁을 통해 나뉘어진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시각적으로 암시한다. 작품의 입자들은 어두운 안료로 그림자 효과를 더해 마치 땅 위의 균열이나 고랑을 연상시키며, 본질적으로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지 조각들의 밀도 높은 집합은 분화구나 지형의 굴곡을 연상시키는 입체적인 형상으로, 충돌, 소멸, 생성이 반복되는 정보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탄생하는 인류의 역사를 담아낸다. 동시에,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적 정체성의 층위를 물질성과 시공간의 전환 속에 시각화한다.

# Forever Couplehood II (Day)



문지하(b. 1973). Forever Couplehood II (Day), 2014.  
한지 위 잉크, 아크릴, 실크스크린 프린트. Farwest Steel 한국미술 기금 구입, 2018:34.2

디아스포라 작가 문지하(Jiha Moon)는 동양의 전통, 유럽계 미국 미술의 정전,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상징과 아이콘을 역동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동시대 속 문화 구성 요소들의 유동적이고 혼종적인 특성을 탐구한다. 이 작품 《Forever Couplehood II》에서 작가는 꿈결 같은 생동감을 띠는 형상들을 구성하며, 한국 전통에서 부부의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새 한 쌍을 그려 넣어 연인 관계라는 주제를 중심에 둔다. 이 주제는 작가가 참고한 한국 민화와 고전 문학, 디즈니 애니메이션, 디지털 브랜드 로고, 그리고 다양한 현대적 상징체계의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쌓아 표현함으로써 한층 풍성하게 확장된다. 문지하에게 있어 갈색 한지는 그녀의 한국적이면서도 다문화적인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재료이다. 이 한지는 고서와 골동품, 역사적 유물들로부터 떠오르는 향수 어린 감성을 환기시키며, 작가의 기억과 문화적 배경을 담아내는 개인적이자 집단적인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 조던 슈니처 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미술품

오리건대학교 조던 슈니처 미술관(JSMA)은 미국 내 대학 미술관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미술 전용 상설 전시 공간을 마련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본 미술관은 기원전 1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회화, 서예, 도자, 조각, 금속공예, 직물, 가구, 판화, 사진, 시간 기반 매체 등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는 500여 점의 한국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JSMA는 설립자 거트루드 베스 워너(Gertrude Bass Warner)가 수집한 초기 한국 유물에, 조경숙(Kyungsook Cho Gregor), 로버트 & 산드라 마티엘리(Robert & Sandra Mattielli) 등 주요 수집가의 기증 및 대여품을 더해, 역사적·근현대 한국 미술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를 허완구·김영자 윙(Wan Koo and Young Ja Huh Wing)과 진주 갤러리(Jin Joo Gallery)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본 미술관은 20세기 초 한국의 일상 풍경을 세밀하게 기록한 스코틀랜드 출신 작가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의 판화, 회화, 드로잉 등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소장한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JSMA의 한국 미술 교육 및 전시 활동은 KF 글로벌 챌린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파견된 유능한 인턴들의 활약으로 더욱 풍성해졌으며, 국립문화재연구원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후원은 소장 한국 회화 두점의 보존 처리, DB 갱신 및 재촬영, 그리고 2종의 한·영 이중언어 도록제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 **《Fluid Continuity》**는 본 미술관 동아시아미술 부문 2023-2025년 석사 후 큐레이터 펠로우 정수진, 그리고 2024-2025년 KF 글로벌 챌린저 인턴 황수현의 장기적인 연구와 기획의 결실로 완성되었습니다. JSMA는 이처럼 재능 있는 차세대 연구자들의 여정에 동행하고, 그 성과를 전시로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앤 로즈 키타가와 (Anne Rose Kitagawa)**

소장품 및 아시아미술 수석 큐레이터 겸 학술 프로그램 디렉터



## JORDAN SCHNITZER MUSEUM OF ART

University of Oregon

### 조던 슈니처 미술관에 관하여

오리건주에서 미국 박물관협회(AAM)의 정식 인가를 받은 유일한 대학 미술관인 오리건대학교 조던 슈니처 미술관(JSMA)은 대학의 학문적 사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전시, 주요 소장품, 그리고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SMA의 소장품 전시실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미술을 중심으로 방대한 소장품 중 엄선된 작품들을 소개하며, 특별전시실에서는 자체 소장품과 국내외 대여작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JSMA는 국제 문화 간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가며, 예술을 매개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심화시키는 발견과 배움의 열린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430 Johnson Lane, Eugene, OR 97403 | 541-346-3027

[jsma.uoregon.edu](http://jsma.uoregon.edu)